

# “제발 어른이 되세요” 전남대 교수 갑질 사건 유족의 외침

“제발 어른이 되십시오” 광주시민사회가 전남대 교수들로부터 갑질 피해를 겪다 숨진 대학원생 고(故) 이대원(24)씨 사건에 대한 학교측 진상규명 결과 공개와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씨의 유족들도 갑질을 가한 교수들에게 “제발 어른이 되라”고 분노하면서 책임인정을 요구했다.

민주시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를 비롯한 12개 광주시민단체들은 6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대는 대학원 교수 갑질 사건과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보고서와 함께 인권실태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가해교수들을 징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갑질 의혹을 사고있는) 지도교수는 자신이 교육해야 할 제자에게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논문 저자로 등재하게 하고, 학생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써야 할 학생인건비를 회수해 관리하도록 지시했다”며 “연구교수는 아무 관련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업무를 시켰고 제때 마무리 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씨 “학교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교수들의 갑질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전국 대학원생들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절망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뒤늦게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인권실태조사에 나섰으나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원생들은 부당한 갑질을 당해도 이미 학비 등으로 들인 돈과 시간, 지도교수의 영향력으로 불이익이 염려돼도 그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이상 젊은 대학원생들이 교수의 갑질과 학교의 무관



6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지부의 전남대 교수 갑질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뉴스시스

## 전남대 교수 대학원생 갑질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진상조사보고서·인권실태조사결과 공개, 재발방지대책을” 유족도 “교수들 사법 심판 받고 학교도 책임 인정을” 촉구

심으로 고통받아서 안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전남대는 조속히 진상조사결과보고서와 인권실태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가해 교수들을 징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더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씨의 동생 승환씨는 발언을 통해 “가해 교수들은 숨진 형을 학생으로도,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다. 자신들도 똑같은 길을 걸어왔다면 그들이 잘못된 것을 모를 리 없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전남대에서는 지난 7월13일 광주 생활관(기숙사) 9동 앞에서 이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교수진의 사적 심부름 등 갑질 의혹이 담긴 유서가 발견되면서 경찰 수사에 이르렀다. 경찰은 연구교수와 지도교수를 각각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오권철 기자



광주 서구가 불편 민원을 접수하고 보행자 울타리 등을 철거한 상일여고 통학로. 사진-광주서구

## 광주 서구 불편 문자 한통... 확 바뀐 등굣길

### 광주 서구 소통창구 ‘바로문자하랑께’ 안전 불편 민원 접수 울타리에 막혀 통학버스 내린 학생 도로로 걸어... 철거 진행

“정문 앞 보행자 울타리 때문에 학생들이 차도로 걸어야 해요.” 광주 서구가 대표 소통창구인 ‘바로문자하랑께’를 통해 접수된 불편 민원에 신속 대응하면서 학생들에게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었다. 6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상일여고 학생회와 학부모·교직원 등 ‘바로문자하랑께’를 통해 등굣길 안전 불편 의견을 전달했다. 통학 버스에서 하차한 학생들이 정문 앞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 보행자 울타리에 막혀 차도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울타리를 일부 철거하고

중앙 분리대를 설치할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 민원을 접수한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서구는 보행자 울타리 68m구간 철거, 도로 중앙 120m구간 중앙분리대 신설을 결정했다. 공사는 이달 초 관계기관과 협의의 통해 마쳤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현장의 불편을 직접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기관의 협조 덕분이었다”며 “주민의 목소리에 신속히 응답하며 생활 행정을 구현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석우 기자

## 광주 일부 청소년시설, 인건비 등 보조금 관리 허술

### 광주시 특정감사 결과 3개 시설서 부정적 사례 적발

광주지역 일부 청소년시설이 인건비 등 보조금 관리를 허술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이 지난 6월17일부터 2주 동안 청소년시설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정적 편성과 적립포인트 세입 조치를 허술하게 한 사례, 초임 호봉을 부적절하게 획정한 경우 등이 줄줄이 적발됐다. A시설은 기간제 근로자 4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지난해 운영비를 끌어와 1억32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2022년부터 3년간 예산을 인건비가 아닌 운영비로 편성해 부적절하게 사용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들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직원 연봉 책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운영규정’에 포함해 정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받았다. B시설은 신용·체크카드 12개 사용으로 발생한 적립포인트 117만여원을 세입조

치지 않고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식자재를 구매하면서 입찰을 통해 납품 실적과 위생 관리, 가격, 품질 등을 따져본 뒤 단가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346회에 걸쳐 4476만 원을 들여 직접 구매하는 등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억 9551만 원어치의 식자재를 입찰 없이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기관은 지난해 4월 입사한 직원의 초임 호봉을 확정하면서 경력 인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단법인 등 4곳의 근무 경력 3년9개월을 합산한 4년3개월의 경력을 인정해 초임 호봉을 초과 책정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또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6건을 계약하면서 계약금의 10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계약 보증금나 보증서 제출도 면제해준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들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송현근 기자

## ‘신분세탁 뒤 잠적’ 징역형 미집행자 1년5개월 만에 검거

끈질긴 추적 성과... “징역 2년 확정 뒤에도 잠적, 말소된 신분 행세로 처벌 회피 시도”

검찰이 사기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으나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잠적한 20대를 끈질기게 추적해 검거했다. 광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실형 선고가 확정된 뒤에도 1년5개월여간 도피·잠적한 유모(24)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유씨는 가까 임차인 역할을 해 공범과 함께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 1억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유씨에 대해 지난해 5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 없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 확정 이후 유씨가 돌연 잠적하면서 형 집행은 잠정 보류됐다. 유씨는 가족이 없는 고아였고 휴대전화 등 신병을 추적할 단서가 마땅치 않았다. 이에 광주지검은 유씨가 소년 시절 벌금형 선고 전력을 통해 확인한 과거 주소지인 고아원을 탐문했다.

탐문 결과 유씨가 고아원 퇴소 이후 인적사항이 바뀐 사실이 드러났다. 유씨는 생부와 재회하면서 자신의 본명으로 등재된 본인이 따로 있는 이중(二重) 주민등록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김모(23)씨로 등재된 제적등본 말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유씨는 수사를 받는 도중 이중 등본 말소 신청을 하고도 밝히지 않았다.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유씨는 이미 말

소된 김씨 신분으로 행세해 재판을 받아왔다. 이른바 ‘신분 세탁’으로 형사처벌을 피하려 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곧바로 피고인을 말소된 김씨가 아닌 현재 등본대로 유씨로 고치는 판결문 결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어 유씨의 이름,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토대로 통화내역을 분석해 같은 달 30일 대전에서 검거, 징역형 수감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 집행 장기화가 우려되는 고난도 미집행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추적 방법을 활용, 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민규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